



역사속의 '인간 붓다' 본받아 수행하고 전법 하자

붓다는 신이 아닌 '길을 가리키는 사람'

고따마 붓다가 태어난 시대는 봉건적 세습 군주국가에 의해 공화정을 펼치던 부족국가가 정복되어가는 정치적 격변기였으며, 제2의 계급에 속했던 컷타이들이 바라문들의 명목상의 권위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한 시기였다. 또한 강가강 중류 지역에서 점차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로 제3의 계급에 속했던 평민들 가운데 경제적 성공을 거둔 이들이 사회적 실력자로 부상하는 시대였으며, 고대인도의 사상계가 관념론과 유토피아로 갈라져 극한적 대립으로 치달고 있는 혼돈의 시대였다.

이처럼 고따마 붓다는 마치 혁명이라도 일어났듯 격변의 시대에 태어났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조차 없는 격변과 혼란의 한 복판에 태어난 붓다는 이미 극한대립을 조절하고 화해시켜야 할 역사적 사명을 떠안고 온 셈이다. 붓다가 말한 중도(中道)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안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이 땅의 대부분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신행은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 고따마 붓다가 가르친 삶의 방식을 체험을 통해 자기화(自己化)하기보다는 신격화(神格化)되고 초인화(超人化)된 붓다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한마디로 불교학이 아니라 불교신학(佛敎神學)의 성향이 짙다. 고따마 붓다에 대한 신학적 접근 방식은 신앙심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불교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불교에 대한 왜곡과 오해를 불러왔다. 불교의 신화화야말로 불교 타락의 극치라 하겠다.

고따마 붓다를 직접 만난 사람들에게는 고따마가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각자(覺者)로서 위대한 스승이요, 출가한 이들의 단체인 상가의 창설자요, 상가의 후원자들인 우빠사카와 우빠사카를 조직한 지도자였다. 당시의 불교도에게는 우상숭배도 없었고, 출가자에게는 사제(司祭)의 역할도 없었다. 붓다는 선각자로서 '길을 가리키는 사람일 뿐' 신이 아니었다.

라자가하에서는 시자 우빠와나에게 '내가 지금 풍으로 최후가 아프니, 너는 지금 성으로 들어가 따뜻한 꿀물을 조금 구해오라'고 했고, 아난다에게 '지금 나는 늙어빠진 노인이라 머지않아 갈 것이다. 나는 인생행로의 끝에 도착했고, 생의 한계를 맞고 있다. 내 나이 벌써 80을 넘지 않았느냐. 나는 이제 쉬고 싶을 뿐'이라 했듯이, 붓다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제자 왓갈라가 '나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뵈고 싶었는데 몸에 병이 들어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나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아서 무엇 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라 하여 오직 붓다가 깨달은 법을 터득하는 것이 붓다를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붓다를 신처럼 보려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다. 인도 대륙 남쪽 약 500km에서 멀리 마가다의 라자가하까지 찾아왔던 16명의 수행자들이 '저 분은 흑시 신이 아닐까'라고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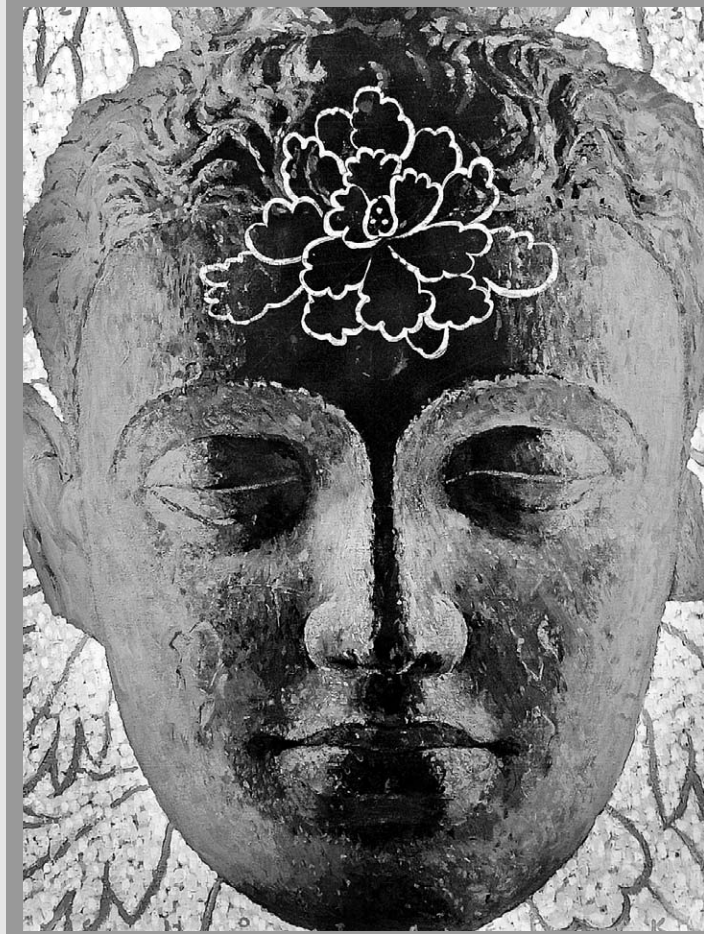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고따마 붓다의 일생을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고따마 붓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 경전들 여기저기에 부분적으로 흩어져 전해지는데다가 더욱이 역사적인 사실과 설화가 뒤섞여 있고, 후대의 전적(典籍)일수록 역사적 존재로서 붓다의 모습보다는 신화적인 모습들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따마 붓다의 전기를 읽을 때, 저자에 따라 붓다가 다양한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은 어떤 자료를 어떤 시각에서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우리 주변에는 고따마 붓다를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신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필자는 역사적 존재인 고따마 붓다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실적이면서도 생생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신심을 정립하는 것이요, 바른 신행의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인간은 역사를 떠나 존재할 수 없고, 누구의 삶도 사회의 바깥에서 존재할 수 없다. 고따마 붓다의 삶도 그가 태어난 역사와 사회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그의 삶을 반영하는 가르침 역시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고따마 붓다의 가르침을 바르게 알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어떠한 변동기에 있었으며, 고따마 붓다와 교우(交友)했던 이들과 그들이 처한 환경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조재익 작 '붓다-불타는 것들' (왼쪽)과 '붓다-꽃이 피다'.



심했고, 포살라국의 옷갓타에서 세타피야로 가는 길에 만났던 바라문 도나도 '당신은 신이 되셨느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붓다는 '나는 신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포살라의 빠세나디왕이 '붓다는 금강신(金剛身)이라 하던데 늙고 병드는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진리의 체현자인 나에게도 늙고 병들며 죽는 일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금 나 역시 사람일 뿐이다. 아버지는 숫도다나오. 어머니는 마야시며, 컷타이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일 뿐'이라 했다.

붓다 그분을 신처럼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붓다 자신이 말했듯이 인간일 뿐이라고 볼 것인가. 붓

다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더 이상 변민하지 않으면서 대자유의 삶을 누리는 지혜를 성취한 인간이기를 원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중생들의 마음은 지상의 인간이 아닌 신(神)으로 그리려고 했다. 붓다에 대한 존경심이 그려내는 아름다움이겠지만 붓다에 대한 실제적 접근에는 큰 장벽이 된다.

붓다의 인간적인 삶이 더 위대하다

붓다가 위대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위대함은 오히려 붓다에 대한 시기질투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붓다에 대한 시기질투는 붓다를 모함하고 살해하려는 사악한 행위

까지 불러왔다. 반대세력의 모함은 붓다가 겪게 되는 아픈 시련이었는데, 사람들은 붓다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흑독한 시련을 겪는다는데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붓다가 정말로 위대한 존재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져볼 수도 있지만 그의 삶을 지켜보면 붓다의 위대성에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는 없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도 업보(業報) 자체를 거역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다시 말해 깨달음을 성취한 붓다라 할지라도 인과(因果)의 이치를 초월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붓다와 같이 위대한 인물도 자신이 행한 업에 대한 대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인과의 필연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인과응보(因果應報)를 강조함으로써 어떤 사람도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말하게 된다.

용수(龍樹)는 붓다가 인과의 굴레를 넘지 못하고 겪어야만 했던 고통스러웠던 일 아홉 가지를 들고 있는데, 순다리의 변사사건, 진짜마나위까의 거짓 임신사건, 데와닷따에 의해 발에 상처받은 사건, 결식하다가 나뭇가지에 발을 짚린 사건, 위두다바의 사까족 몰살사건, 웨란자에서 말뚝이를 먹어야 했던 일, 찬바람으로 척추를 앓았던 일, 성도전(成道前)의 6년 고행, 땀자살라 마을에서 결식하지 못한 일, 웨살리의 고따마까 껌따야에서 동지 전후 8일 밤을 세벌의 가사로 추위를 견뎠던 일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이 역사속의 붓다는 설화속의 붓다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불교를 믿으면서 부처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한국불교의 위기는 교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고따마 붓다, 그는 진정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불교의 교주론(教主論)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도와 자비실천의 일생 본받아야

고따마 붓다의 80평생을 간단히 말하면 깨달음을 얻기 전의 구도의 과정과 깨달음을 얻은 후의 자비실천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붓다가 되기까지의 삶, 즉 구도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숫도다나의 아들로 태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다가 29살에 출가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존재의 실상을 눈뜨기까지의 삶은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구도의 길에 나섰는가를 말해준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볼 때, '엄연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관하기 위해 욕망을 떨쳐내는 과정'이었으니, 자기 자신과의 투쟁이었고, 지혜를 완성하는 길이었다. 한 마디로 욕망에 가득 찬 기대감을 떨쳐버리는 비움의 과정이다.

그렇다면, 붓다가 깨달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깨달았다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 없었던 것을 있도록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지만 모르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여실지견(如實知見)이 바로 붓다의 깨달음을 번역한 말이다. 그 '알고 보는' 깨달음이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졌기에 등정각(等正覺)이라 하고, 정변지(正遍知)라 했다.

깨달음은 '있는 사실 그대로 알게 되었다'는 뜻

붓다가 말하기를, '붓다가 세상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이 법은 상주(常住)하는 현상계가 존속하는 이치(法住)이며, 현상계의 근원적인 원리(法界)로서 붓다인 내가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보편타당한 깨달음(等正覺)을 이루었다'고 했던 것이다. '눈앞에 펼쳐지는 사실 그대로'가 현상계요, 현상계는 고정되어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인연을 따라 수시로 바뀌고 변하는 역동적인 모습이기에 어떻게 한

불교계, 새희망, 새미래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귀의삼보하옵고

한국 불교계 각 종단 대표 고승대덕스님 그리고 7천만 민족과 불자 사부대중께 아뢰옵니다. 수 천년 유구한 불교역사는 한국불교인의 혼이며, 역사며, 미래입니다. 불교의 정신으로 불국정토를 위하여 구불정신으로 뜻을 같이하십 각종단 대표 총무원장님의 동참을 제방에 선포합니다.

고 문 27개 종단 중징예하

명예 총재 (본회 총재 역임자)

- 자문 위원 **도산, 적관** (각계 대표위원)
- 총 재 **운 산** (태 고 종 총무원장)
- 부 총 재 **혜 정** (일 승 종 총무원장)
- 회 장 **지 암** (해동임제종 총무원장)
- 수석부회장 **위 산** (위 양 종 총무원장)
- 상임부회장 **법 민** (한국원효종 총무원장)
- 부 회 장 **보 각** (약 불 종 총무원장)
- 행정위원장 **법 장** (삼 보 종 총무원장)
- 재정위원장 **법 광** (한국대승종 총무원장)
- 감사위원장 **대 광** (무 상 종 총무원장)

- 운영이사 **청 호** (연 화 종 총무원장) 외교위원장
- 운영이사 **학 성** (해동무량종 총무원장) 가람위원장
- 운영이사 **화 담** (불 교 종 총무원장) 의전위원장
- 운영이사 **덕 산** (소림선종 총무원장) 무공위원장
- 운영이사 **도 경** (선조계종 총무원장) 의료위원장
- 운영이사 **자 오** (원 각 종 총무원장) 기획위원장
- 운영이사 **원 광** (도 천 종 총무원장) 호계위원장

- 운영이사 **원 당** (한국천태종 총무원장) 정책위원장
- 운영이사 **구 천** (법 양 종 총무원장) 정보위원장
- 운영이사 **대 명** (천 지 종 총무원장) 연수위원장
- 운영이사 **도 선** (생활조계종 총무원장) 사정위원장
- 운영이사 **도 오** (임제울종 총무원장) 홍보위원장
- 운영이사 **혜 일** (연 합 종 총무원장) 문사위원장
- 운영이사 **도 산** (임제선종 총무원장) 선원위원장

■ 사무소 : 경남 김해시 삼정동 17-10 (삼보빌딩 3층)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
 ■ 사무국장 정성무 011- 801- 8197 (행정실) 055-331-7902